자유기고

선한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일

남충현
노인명예기자단 단장

나는 새삼 나를 낳아준 국가와 사회 그리고 나의 부모에 대하여 감사하게 된다.

지난 40여년동안 한낱 벌판에 버려져 있는 나무와 같던 나를 군대를 통해서 그리고 학교사회를 통해서 지금의 나를 키워 준 것이 바로 그들이었기 때문이다.

지난11월19일 포천신문 노인명예기자로 위촉되었을 때 그 감회는 나에게 새롭기만 하다. 방송에서 흘러나왔던 이런 싯귀가 생각난다.

"연탄재 함부로 버리지 마라. 넌 누구에게 도움을 준 일이 있었느냐?"

연탄은 가난하고 추운 사람들에게 자신의 몸을 태워서 자신을 다 불사르고 난 후 추한 쓰레기로 변하기 때문에 그 가치가 높은 것이다. 내 이제 연탄만큼이라도 남을 위해 선한 일을 할 것이다. 그래서 첫 노인명예기자 활동의 일환으로 우리 포천사회에서 남을 위해서 가장 헌신적으로 몸을 던져 일하고 있는 선한다문화 가정 지원센터를 다루기로 했다.

소흘읍 무봉1리 50번지에 자리하고 있는 선한목자예수수녀회에서는 2007년4월1일부터 현재까지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소위 다문화가정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김은영 수녀 중심으로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시간 이상씩 낯선 한국인과 살면서 문화차이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들을 돕기 위하여 다문화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사실 동서이데올로기가 무너지면서 그리고 인터넷과 산업의 급속한 발달로 국경이 무너지고 세계가 함께하는 지구촌이 된지는 이미 오래다. 그 결과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나가 사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지만 우리나라가 좋아서 와서 사는 사람도 120만명이 넘는다고 한다.

그러나 이들이 우리사회의 구성원이 되기는 하였지만 극심한 문화차이로 그들이 겪는 고통이란 그 정도를 훨씬 넘어 사회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점에 중점을 두고 평소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의 실천에 앞장서왔던 카톨릭 춘천교구 가산이주노동자센터에서 이 활동을 해오게 된 것이라고 한다.

이곳의 하절기프로그램 활동을 내용은 크게 다섯가지로 첫째 화,목,금 2시간씩 한국어 교육을 하는데 반을 첫걸음반, 초급반, 중급반, 한국어능력시험 대비한 한국어 집중 교육반으로 나누는데 학생들의 능력에 따라 선택이 되고 교사들은 전원 자원봉사자들로 구성이 된다고 한다.

둘째, 수요일에는 문화교육을 실시하는데 퀼트(손바느질), 음악, 염색, 공예 등이다.

셋째, 다문화교육으로 이곳에서 교육받고 있는 외국인 학생들이 반대로 초등학교 등에 나가 1일 외국문화 전수교사로 활동 홍보하고 또 센터와 결연한 자매학교의 초등학교 학생들은 이곳센터에 와서 다문화캠프체험을 하게 된다.

넷째, 가정지원 프로그램으로 이들 교육생들의 부부모임, 가족모임, 여름캠프가 있는데 건강한 다문화 가정을 위한 것이다.

다섯째, 건강지원 프로그램으로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육아강좌와 포천의료원에서 지원하는 건강진단과 소아과 진료, 임신과 출산 강좌 등이 있다.

동절기 프로그램으로는 육아상담과 독서로 우리문화 배우기가 있다. 결과 위의 활동들을 하는데는 적지 않은 비용과 인원이 필요한데 예컨대 교육봉사자는 현재 11명, 아기돌보기 6명, 운전봉사자 1명, 시설관리 봉사자 등이다.

교재인쇄비, 복사기, 용지 등등을 위한 비용조달은 바자회 수익금, 개인후원금, 민간단체 보조금과 시에서 한국어 강사보조금등으로 이루어지는데 여유만 있다면 사회복지사의 도움도 받고 싶다고 김은영 수녀는 애로사항을 말한다.

다문화센터의 학생들 구성을 국적별로 보면 베트남, 중국, 필리핀, 몽고, 일본,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등의 순이다. 많은 나이차이, 생김새, 언어, 교육의 차이가 이들의 외모에서 느껴지지만 이곳에서의 생활은 마치 우리나라 옛날 초등학교의 신입생들처럼 순진하고 소박하게만 느껴진다. 교육여건들이 너무도 열악해 보여서 이들을 교육하는 분들이 더욱 존경스러워 보이고 하루속히 국가가 이를 돌려 받아야 하는게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한다.

이런 교육을 주관해 온 김 수녀에게 어떤 점이 가장 교육하기에 힘들었는가 하고 물었더니 학생들의 수준차이가 너무 심해서 반구성과 교육하기가 힘들었고 학생들을 일일이 데려오고 데려다 주는 일과 학생들의 가정불화, 잦은 이사로 못나오게 될 때가 가슴아팠다고 밝혔다.

나는 그러나 곳곳에서 다문화센터를 설명해 나가는 김은영 수녀로부터 "단 한명의 학생이 배우기 위해 우리 센터를 찾아오는 한 기꺼이 그들을 돕는 교육에 이바지하며 앞으로도 이들의 우리사회 적응을 돕고 이해하는데 매진해 갈 것이다"는 말을 듣고는 더 이상 질문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게 되었다. 우리사회의 앞날에 희망이 있음을 의심치 않는다.

해외여행기

나는 유럽에서 영천목장을 보았다

이은미
주부명예기자단 이사

추수철 논에서는 한참 탈곡을 하고 밭에 있는 배추, 무의 목마름에 물주는 농부의 손길이 분주하다. 낙농육유협회에서 '여성낙농유럽선진지 견학'에 참여할 수 있느냐는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일본,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등 동남아는 나름대로 견학을 했지만 프랑스, 독일이라! 나는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가겠다고 했다.

드디어 10월27일 프랑스 파리 국제공항에 도착하니 어둑어둑해가 저물어 갔다. 썸머 타임 해제로 한국과 프랑스의 시차는 8시간이다. 세느강 바또무슈 선착장에서 우리는 유람선 창 밖 파리의 야경을 감상했다. 푸른 빛이 감싸는 조명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에펠탑을 보고 "와"하고 탄성이 절로 나왔다.

다음날 우린 떼제베 고속열차를 타고 낙농가가 많이 산다는 시골마을 브레따뉴로 향했다. 구름 한 점 없는 청명한 아침햇살이 눈부시게 빛났다. 드넓은 초지에 방목한 젖소들을 보니 나의 마음까지도 여유로움이 가슴속 깊이 스며들었다.

하루에 사계절이 있는 나라 프랑스! 여름은 무덥지 않고 겨울도 많이 추운 편이 아니라 낙농하기에 좋은 나라다. 다시 발걸음을 목적지 헨느 농업회의소에 도착하였다. 담당자 인솔 하에 프랑스 '낙농의 현황 및 미래전망!' 낙농산업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과 발전에 대해 토의하며 낙농가의 체험담을 들었다.

젊은 여성낙농인은 목장에서 우리를 맞아 주었다. 친정아버지께서 하시던 농장을 인수하여 남편과 2개의 법인농장을 운영한다며 수확기 때는 일하는 사람을 고용하지만 평상시에는 부부가 분담하여 남편은 밭일과 아침·저녁으로 착유를 담당하고 부인은 낙농학교를 졸업해 가정살림과 아이들 교육, 목장관리를 하며 본인이 택한 일에 만족하다고 했다.

프랑스 여성은 법적으로 지위가 보장되어 그런지 당당한 모습이 너무나 보기 좋았다. 나도 남편을 도와 목장 일을 한다고 생각하니 잠시 마음이 흐뭇했다. 앞으로 낙농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목장관리를 해야겠다고 다짐해 본다.

헝지스 국제 농수축산물 도매시장에 도착하였다. 수산시장, 축산시장, 화훼시장, 청과시장, 세계 최대의 시장으로서, 면모를 유감없이 자랑하고 있었다.

그리고 낙농가가 직접 운영하는 숙박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농가를 찾았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낙농체험농장' 이라 할 수 있다. 아버지는 은퇴하셨고 두 아들은 낙농법인을 경영하며 어머니와 아내는 낙농체험농가를 운영하고 있었다. 직접 만든 숙성된 와인에 치즈, 우유, 빵, 스테이크로 저녁식사를 만찬으로 준비해 주셨다.

벌써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에 얼큰한 김치찌개가 그립다. 프랑스에서 4일 동안 로봇이 착유하는 농장, 유기농우유를 생산하는 농장, 치즈를 만들어 직접 생산 판매하는 농장을 견학을 맞추고 프랑스여 아듀~

우리 팀은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향했다. 친환경 우수 농가는 마을 중심지에서 운영되고 있었다. 바이오 가스시설을 갖춘 농장으로 낙농에 관련된 상품을 직거래로 판매를 한다. 나는 젖소들이 요가 하는 그림엽서를 구입했다. '아이들이 좋아하겠지!'

두 번째로 방문한 독일의 농가는 친환경낙농으로 분뇨를 이용해 바이오 가스시설로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었다. 키가 크고 기골이 장대한 남자 주인이 우리를 맞아 주었다. 낙농업, 곡물농사, 바이오가스 3개의 법인회사를 운영하며 얼마나 많이 잃을 했는지 손이 거칠었다. 젊은 여성 또한 트랙터로 열심히 작업하는 모습을 보았다. 낙농이 힘들고 어렵지만 '위기가 곧 기회'라고 우리도 열심히 부부가 합심하여 일하면 낙농도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유럽해외연수로 많은 것을 보고 느꼈다. 한국낙농은 기술적인 면이나 위생적인 면에서는 뒤떨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목장경영관리, 노동, 자금, 회계, 기록, 관리를 체계적 교육하여 법적 보장이 향상되면 유럽여성낙농에 조금도 뒤질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농축산 정책을 기획하는 지자체에서의 가장 심각한 것은 분뇨처리문제다. 지자체에서는 바이오가스 사업으로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수익도 올리고 축산업인의 숙원사업이 해결되는 날을 기대해 본다.

11월 3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 나는 오늘도 나를 기다려주는 영천목장 가족 품으로 달려가고 있다.

자유기고

자랑하는 백발 칠순의 제자

제자들이 마련한 2003년 50주년 기념행사에 참가한 필자(가운데).

악몽의 6.25는 휴전으로 끝이 나고 한강은 자유롭게 왕래를 못하고 미군 헌병대가 도강증을 검사해서 서울에 들어가는 때이다.

1953년에 고생의 시흥국민학교 졸업식을 하게 된 것이다. 시흥국민교는 그때 미군 5.8 탄약부대가 들어있고 우리는 학생을 데리고 산밑에 허무러진 단군전(단군님 모신 곳)에 창문은 가마니를 길게 느리고 시멘트 바닥에는 짚을 깔고 옹기종기 앉아서 공부를 가르치었다.

학생들은 옷도, 양말도 해지고 점심은 굶는 형편이 많았다.

책가방은 탄약통에 책을 넣고 들면 가방이고 놓으면 책상이다. 이렇게 공부를 마친 학생들은 마침 서울의 명문중학교에 모두 합격해서 참으로 자랑스러웠다.

그 제자들이 2003년에 50주년 기념행사를 하고 60주년 행사를 준비중이라고 한다. 일정에 한 학생의 고희에 참석해 대접을 받은 적도 있다.

이 백발의 제자들은 누가 시켜서 해마다 찾아오겠냐마는 한결같이 찾아주는 백발의 제자들을 공개 칭찬하고 싶다.

이상운
노인명예기자
(포천시 신읍동 일신아파트)

포천신문 창간 제19주년을 축하합니다

포천이 낳은 근대소설의 개척자

동농 이해조 문학 기념 특별강연회

연 제 | 이해조의 문학사적 위상의 재정립
강 사 | 홍정선(인하대학교 국문과 교수, 문학과지성사 공동대표)
일 시 | 2008년 12월 15일(월) 오후 4시~6시
장 소 | 포천중문의과대학교 본관 205호실

후원 : 포천시, 포천시의회, 포천교육청, 포천문화원, 포천신문사, 포천문인협회

* 특별강연회가 끝나고 '동농 이해조 선생 기념사업회' 송년회가 '동교송어장' 에서 있습니다.

동농 이해조 선생 기념사업회 문의처 : (031)543-2685 www.leehaejo.org